

## 먹을거리와 사회문제

### 먹을거리 불안전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관한 소고

강상우(복지 Coram Deo)

#### 요약

본 연구는 확장된 시야를 가지고 먹을거리 불안정성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논구하고자 한다. 이는 먹거리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구조적 문제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먹을거리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편의상 3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건강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가 그것이다. (1) 건강 문제의 경우, (a) 나쁜 음식에 노출된 소비자의 경우, 암,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등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b) 공장식 농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경우, 호흡기질환이나 폐질환, 뇌손상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c) 공장식 농장의 사육 동물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중도 폐사율이 높고,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2) 환경 문제로는 (a) 물(淡水) 고갈 문제, (b) 지구온난화(온실가스 증가), (c) 단일경작(monoculture)으로 인한 종의 다양성의 훼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3) 경제 문제의 경우, (a) 공장식 축산과 (b) 농산연료(agrifuel), (c) 토지수탈(land grab), 그리고 (d) 농작물의 금융상품화로 인해 식량 재분배에 대한 왜곡(歪曲)이 일어나 지구적 빈곤(기아(飢餓))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먹을거리와 관련된 사회문제의 대안으로 음식 시민권자(飲食市民權者)로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 기존의 글로벌푸드 경제(체계)에 대한해서 로컬푸드 경제(시스템)에 맞는 식습관을 가질 것에 대해 기술하였다.

**주제어: 나쁜음식, 지구온난화, 농산연료(agrifuel), 토지수탈(land grab).**

## 먹을거리와 사회문제

### 먹을거리 불안전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관한 소고

#### I 들어가면서

##### 1 擴張된 食卓談話 必要

먹을거리의 안전성의 문제는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공적(公的)이고도 구조적(構造的)인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먹을거리의 불안전성은 개(個)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매리언 네슬(Marion Nestle, 2011)은 자신의 책인 『식품정치』(Food Politics: How the food industry influences nutrition and health)가 출판되기도 전에 비판가들에 의해서 비판되어졌을 때의 일을 소개한다. 레슬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먹을거리와 관련하여 불안전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것이다. 먹을거리와 관계된 문제는 반드시 개인적 차원에서의 다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보다 더 큰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나는 『식품정치』를 쓰면서, 식품 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인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것- 사회적, 상업적, 제도적 영향들-에 관심의 초점을 두었다. 만약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 선택이 오직 개인적 책임에 관련된 문제라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좀 더 잘 먹도록 교육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건강에 이로운 식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라면 건강에 이로운 선택이 기본이 되도록 사회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는 『식품정치』가 관심의 초점을 개인에게서 식품 선택과 특히 식품 마케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회의 변화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Nestle, 2011: 8)

##### 2 研究問題와 範圍

###### 1) 연구문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 [먹을거리 문제]: 먹을거리와 관련하여 어떤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 2) 연구범위

본고는 다음의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먼저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개인적 차원을 떠나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함을 기술할 것이다. 먹을거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로만 왜 치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다시 말해 캐비엣 엠프토르(Caveat Emptor, ‘위험부담은 구매자가 진다’, ‘buyer beware’)를 넘어(beyond)야 함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먹을거리의 안전성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이는 이에 대한 저서들과 자료들이 많이 출판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경제문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기술할 것이다. 결론 부분에 가서는 먹을거리의 안전성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 3 연구전제: 색깔논쟁으로부터 자유함이 먼저 필요

예를 들어, 최근 출판된 『뽀뽀한 육식동물: 육식가를 위한 선언문』(The Shameless Carnivore: A Manifesto for Meat Lovers)의 저자는 자신을 포함한 일부 육식가들이 채식주의자를 “콩머리, 채식 버거, 공산주의자, 우리의 적”이라고 부른다고 인정했다.(Gold, 2008: 150; Zaraska, 2018: 240 재인용)..

먹을거리 안전성을 논하기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색깔논쟁으로부터의 자유함이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해 지적했을 때 다른 분야에서의 사례(事例)에서도 볼 수 있었던듯이 색깔논쟁과 결부시키는 사례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지적과 지적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지 손다이크 에인절(George Thorndike Angell)이나 금욕주의 여성들 같은 순수 식품 운동가들은 광신자나 사회주의자 혹은 괴짜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았다”(Goodwin, 1999: 73; Wilson, 2014: 239)고 한다. 그러므로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논쟁은 그 무엇보다도 색깔(理念)논쟁으로부터 자유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4 研究限界

본고는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들을 본 글의 제목에 맞게 재구성(모자이크化, mosaicization)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밝힌다(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독창성이란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전[前]연구자들의 많은 수고[勞苦]에 감사드린다. 특히 이들 연구들을 한국어로 옮긴 한국어 번역자들에게는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린다). 먹을거리 문제는 범위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다. 가장 세계화를 잘 보여주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먹을거리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된 범위에서 본고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먹을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3가지 영역, (1) 건강(보건), (2) 환경, (3) 경제의 문제로 나누어서 다루었다. 이러한 영역의 분류는 매우 임의적이며 기술(記述)의 편의상의 분류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힌다.

## II 먹을거리 不安全으로 발생하는 社會問題에 대한 食卓談話

## 1 캐비엣 엠프토르를 넘어(Beyond Caveat Emptor)

거시적 측면에서 먹을거리 안전성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를 소비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만 보았었다. 이를 잘 표현하고 있는 라틴어 문구가 바로 “캐비엣 엠프토르(Caveat Emptor ‘위험부담은 구매자가 진다’, ‘buyer beware’)”다(Lang & Heasman, 2007: 54-55). 말 그대로 먹을거리 섭취는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이며, 먹을거리는 그것을 먹는 사람과 그것을 파는 시장(市場)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먹을거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특히 否定的結果)는 매우 사적인 한 개인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먹을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들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먹을거리의 문제라는 것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먹을거리로 인해서 작·간접적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목도(目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먹을거리와 관계되는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정, 지역공동체와 한 나라, 더 나아가서는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문제로 번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먹을거리의 문제가 세계화의 과정에 맞물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이다.(먹을거리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다룬 저서로는 Clapp, 2013; Nestle, 2011; Holt-Gimenz & Patel, 2011; Patel, 2008; Lang and Heasman, 2007; Lang, Barling and Caraher, 2012; 김흥주 외 공저, 2015 등을 참조하라). 토머스 F. 폴릭(Thomas F. Pawlick)이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음식의 대부분이 ‘비식품’(non-food)라는 점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소비자로서 먹을거리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意思)에 의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자유롭게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난 50년간의 추이가 꾸준히 사실이었다면, 우리의 식품 공급체계는 이제 지방, 소금, 설탕 같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측정 가능한 영양물질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있는 ‘비식품’(non-foods)들로 구성된 식생활을 향해 냉혹하게 뺏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Pawlick, 2009: 50-51).

그러면 나쁜 음식 말고 ‘좋은 음식’을 골라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反問)할지 모른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먹을거리를 결정하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요인이 무엇보다도 소득 수준(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 지불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음식을 결정할 때 무엇보다도 가격을 비중 있게 따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sup>1)</sup> “식품 선택에서 가격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가격 변동이 영양섭취에 주는 영향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다. 예를 들어, 고기 가격의 하락은 칼슘과 철분의 평균 섭취율을 높이지만, 칼로리, 지방,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증가시키기도 한다.”(Nestle, 2011: 52; Meade and Rosen, 1996: 39-44; Huang, 1998: 11-15 참조).

---

1) 個人的으로 식당 밖에 음식가격이 적혀 있는 곳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식당의 음식 값이 비싸면 매우 당황스럽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체면 때문에 비싸도 나오지 못하고 사먹고 후회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아예 식당 밖에 가격이 적혀 있는 곳을 찾는다. 물론 지금은 그 체면을 옛 바꿔먹었기 때문에 음식 값이 비싸면 그냥 나오기도 한다. 나의 딸이 볼 때에 이러한 아빠인 내가 좀 많이 거시기 할 것이다.

그렇다면 먹을거리와 관련해서 오늘날 회자(膾炙)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고에서는 3가지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고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동물권 등)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의 3가지 영역이란 바로 (1) 건강(보건), (2) 환경, (3) 경제의 문제가 그것이다.

## 2 被害: 먹을거리로 발생하는 諸사회문제

### 1) 健康(保健) 問題

정크푸드(Junk Food)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fast food)의 증가(이를 버거화[버거化, Burgerization], 맥도날드화 [MacDonaldization], ‘코카콜라 식민지화’[coca-colonization], ‘햄버거 문화’[burger culture] 등과 같은 신조어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와 식품가공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각종 화학첨가제를 추가한 가공음식의 판매의 증가, 그리고 공장식 가축사육에서 발생하는 각종 약물의 오·남용(항생제, 살충제, 호르몬제)으로 인해 소비자, 작업 노동자와 그 지역주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집단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의 건강상 발생하는 부작용 등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1) 나쁜 음식에 노출된 소비자(Robin, 2014; Lang and Heasman, 2007; Grant, 2012; Wagenhofer & Annas, 2010; Nestle, 2011; Pawlick, 2009: “3장 약간의 과잉?” 52-110; Reymond, 2008; Norberg-Hodge, Goering and Page, 2003; 김홍주 외 공저, 2015 참조). 김종덕 교수는 현대 음식의 문제로 대표되는 음식으로 글로벌푸드,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그리고 유전자 조작식품 등에 대해서 열거한다.(김종덕, 2012) 이들 나쁜 음식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대 음식을 대표하는 이들 나쁜 음식의 경우 대부분이 각종 첨가제, 항생제, 살충제, 호르몬제 등으로 먹을거리가 뒤범벅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공장식 농장의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위험한 환경에 노출(박상표, 2012; Moby & Park, 2011; 7장 “노동자 문제[Workers]”와 8장 “지역사회 문제[Communities]”; Robins, 2014; Singer & Mason, 2006; Hanh Niman, 2012; Lyman, 2004 등 참조). 공장식 농장으로 대표되는 사육방식은 현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N. 한 니먼(Nicolette Hahn Niman)은 공장식 농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과 지역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퍼듀(Purdue) 대학에서 펴낸 농장 안전 지침서에서는 동물의 배설물이 대량으로 저장된 환경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그 지침서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거름 연못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주는 내용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거름 연못에서 발생하는 가스, 특히 황화수소 때문에 질식사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등장한다. ‘황화수소는 독성이 매우 강한 기체다’[www.purdue.edu] … 공장식 가축사육 시설에서 배출하는 기체는 폐질환, 구역질, 코피, 우울증, 뇌손상 등을 유발했다. 유독성 기체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당연히 축사내부였고, 그에 따라 유독성 기체로 가장 자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었다. 그런 공기를 말 그대로 밤낮으로 들이 마시는 가축의 상황은 더욱더 나빴다. 감금된 돼지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만성 호흡기질환이었다.”(Hahn Niman, 2012: 36-37 재인용)

(3) 공장식 농장의 사육동물의 열악한 현실상(박상표, 2012; Moby and Park, ed., 2012; Hahn Niman, 2012; Martin, 2012; Singer & Mason, 2006; Lyman, 2004 등 참조). 공장식 [가축]농장(factory farm)은 가축을 비육할 때에 공장식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비좁은 공간에 격리시키는 밀집사육, 각종 인공기술, 온갖 화학약품 사용, 곡물사료 투여, 단일품종 사육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박상표, 2012: 11-12) 전(全)세계에서 소비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 43%, 닭고기의 경우 74%, 계란의 경우 68%가 바로 이 공장형 축산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박상표, 2012: 7). 심지어는 오늘날 양식업의 경우도 예외 없이 이 공장식 농장 방법이 생산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 December 9, 2002)는 어느 기사에서 양식장을 ‘바다의 사육장’(feedlots of the sea)이라 일컫은 적이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수산학 교수는 좀 더 직설적으로 이에 대해서 말한다. ‘양식장은 물 위에 떠다니는 돼지 농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Hahn Niman, 2012: 303-304).

## 2) 環境問題

먹을거리는 직·간접적으로 환경의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 먹을거리와 관련된 환경문제로 자주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는 구체적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지하수(물) 고갈문제, 온실가스의 증가 문제(지구온난화), 단일품종(종의 다양성의 훼손)의 확산 문제 등이 대표적인 그것들이다.

(1) 물(淡水) 고갈문제(Holt-Gimenez & Patel, 2011; Millstone and Lang, 2013; Lang, Barling, and Caraher, 2012; Barlow and Clarke, 2002; Hengeveld, 2014; Bommert, 2011: 109-138, “물 전쟁: 물을 향한 세계의 갈증” 등 참조). 공장식 농장의 경우 더욱더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게 된다. 예로 들어 1kg의 쌀을 위해 3000L의 물이 필요로 하는데 비해 1kg의 쇠고기를 위해 1만5000L의 물이 상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다.(Millstone and Lang, 2013: 42). 먹거리 상품의 경우에는 환경적 외부성을 측정하는 형태의 ‘감추어진 물’(embedded water) 개념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70그램의 토마토를 생산하는 데 13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200밀리리터의 우유를 생산하는 데 200리터의 물이 필요하며, 150그램의 햄버거를 생산하는 데 2,400리터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Lang, Barling, and Caraher, 2012: 295)고 한다. 또한 “인구증가 및 1인당 물 소비량의 증가와 더불어 지표수의 세계적 오염 현상 역시 지구상에 남은 깨끗한 민물을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세계적으로 숲이 줄어들고, 습지가 파괴되며, 살충제와 화학비료가 땅속으로 스며들고, 지구가 온난화되는 따위의 현상은 손상되기 쉬운 지구의 수계에 크나큰 위협을 준다.”고 한다(Barlow and Clarke, 2002: 29). 메리디스 세일스 휴스(Meredith Sayles Hughes)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2014년에 대수층(Aquifer)의 평균 수심은 1950년대보다 3분의 2나 감소해 겨우 24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물이 줄어든다면 2040년 무렵에는 대수층이 완전히 메말라 버릴 것이라고 경고한다.”(Hughes, 2017: 103-104).

(2) 지구온난화(溫室가스增加)(Lyman, 2004; Moby and Park ed., 2011; Hengeveld, 2014; Holt-Gimenez & Patel, 2011 등 참조). “대기 중에는 여러 가지 온실기체가 존재하는데,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온실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고 어떤 것은 더 약하다. 메탄과 질산화물, 수증기도 그중 하나인데 모두 이산화탄소보다 강한 온실효과를 낸다”(Hengeveld, 2014: 174-175). 석유와 화학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산업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농업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3-18%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Holt-Gimenez & Patel, 2011: 23 재인용;

www.fao.org/climatechange/49369/en/ 참조). 사료용 곡물 생산을 위해 쓰이는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만 연간 41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하는데 이는 자동차 700만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수치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한다(Moby & Park ed., 2011: 92).

(3) **단일경작(monoculture, 種의 多樣性의 毀損)**. 단일경작이 그 범위를 넓혀 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공장식 농장과 거대식품산업이 단일경작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재배의 편의와 수입(생산량)의 증가와 더불어,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서 단일 경작을 유지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회사들은 전세계 매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감자를 원한다. 왜냐하면 같은 모양의 프렌치프라이드의 공급을 위해서 같은 규격의 감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네덜란드에서는 전체 경작지의 80% 이상에 단일 종류의 감자가 재배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Lang, and Heasman, 2007: 242; 김종덕, 2012: 43 재인용). 그 결과 과거 작물품종의 단 10%만이 계속해서 경작되고 있는 실정이다(Millstone and Lang, 2013: 62).

### 3) 경제문제

(1) **빈곤(飢餓): 식량 재분배의 왜곡**. 월든 벨로(Walden Bello)는 아프리카 대륙이 1960년대에는 식량 순수출국이었던 사실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 “1966-70년에는 연간 순 수출량이 평균 130만 톤에 달했다. 오늘날 아프리카는 식량의 25%를 수입하고 있고, 거의 모든 나라가 식량 순수입국이 되었다.”(Holt-Gimenez & Patel, 2011: 195 재인용). 그런데 지금은 왜 아프리카 대륙은 식량 순수입국으로 전환하게 되었을까?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으로 식량의 산출량이 증가했었을 것인데도 말이다. 먼저 먹을거리에 대해서 돈벌이라는 시장논리(자유주의적 시장논리)로만 접근해서다. 거대 식품업계가 ‘일용할 양식’을 ‘돈벌이용 양식’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조효제의 지적처럼 “이 시대의 먹거리 위기는 모든 사람의 생명보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돈벌이용 상품으로 취급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결과 인간의 육신과 그 정신까지도 수익을 올리기 위한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먹이사슬에 얽매이게 되었고, 넘쳐나는 식량더미 한가운데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모순이 나타났다.”(조효제, in Holt-Gimenez & Patel, 2011: “추천의 글”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농가공업계의 시장 논리에 대해서 주앙 페드로(Joao Pedro Stedile)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들은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Ziegler, 2012: 151 재인용).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富)가 재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 출신의 아마티아 K. 센(Amartya Kumar Sen)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센의 연구에 의하면 현대에 기아는 식량의 부족이 아니라 식량을 살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1943년 기아 사태를 겪어본 센은 땀에 식량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실 식량은 풍족했다. 그러나 식량을 가진 자들은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창고에 쌓아놓았다. 이처럼 곡물 창고에 식량이 가득한데도 그것을 살 여력이 없어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죽어갔다.”(Patel, 2008: 193 재인용).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의 90% 이상이 너무 가난해서 충분한 양의 식량을 살 수 없는 이들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매장 진열대에는 식량이 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에서 쫓겨난다.”고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인 조셋 쉬런(Josette Sheeran)이 지적한 것에서 알 수 있다.(Holt-Gimenez & Patel, 2011: 30).

(2) 빈곤의 원인: 왜곡된 식량 재분배의 원인. 식량 자본화의 논리와 먹을거리의 재분배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초국적 농산품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식량경제(Global Food Economy)와 그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세계식량[먹거리]체계(Global Food System)로 인해서 빈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장식 축산농장(Factory Farming), 농산연료(Agrifuel), 농산물의 금융상품화, 토지수탈 등이다. (a) **공장식 축산**. 먹을거리의 분배에 있어서 가장 어처구니없는 경우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먹어야 할 곡물을 가축들이 먹는다는 것이다. 많은 양의 곡물이 가축의 빠른 비육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 이상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소들이 먹는다. 한쪽에서는 사람이 굶어죽을 때, 상당수 먹을거리가 소의 입으로 들어간 것이다.”(강양구·강이현, 2009: 58). 곡물뿐만 아니라 어획(漁獲)량의 대부분도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다음은 미국의 경우다. “미국은 가축사료 재배에 독일 국토보다도 넓은 면적인 40만 헥타르의 농지를 쓰고 있다. 전 세계 상업적 대두 수확량의 80%, 전세계 곡물 수확량과 상업적 어획량의 약 1/3이 사료로 소비”되어 진다고 한다(Millstone & Lang, 2013: 42). (b) **농산연료(Agrifuel)**.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미국의 에탄올 증류공장에서 사용된 옥수수는 1800만 톤에서 5500만 톤으로 세 배 늘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5400톤에서 8100만 톤으로 증가하여, 그 증가 폭이 연간 세계 곡물수요 증가량의 두 배가 넘었다. 2008년 무렵에는 미국 옥수수 수확량의 4분의 1이 에탄올생산으로 빠져나갔다.”(Holt-Gimenez & Patel, 2011: 111.; Millstone & Lang, 2013: 16 참조). 농산연료로 인해서 인간이 먹을 곡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게 된 것이다. 곡물 양의 감소는 곡물가격의 급등을 야기하고 그 결과로 식량의 배분에 있어서 큰 왜곡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세계적인 굶주림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한 E. 홀트-고메네즈와 라즈 페델(Holt-Gimenez & Patel)은 함께 쓴 책에서 ‘농산연료: 최악의 순간에 최악의 아이디어’라고 악평(惡評)을 하였던 것이다(Holt-Gimenez & Patel, 2011: 5장, 110-128). (c) **토지수탈(Land Grabs)**(Holt-Gimenez & Patel, 2011: 152-153; 토지수탈[land grabs], Worldwatch Institute, 2012b: 338; Clapp, 2013; Sassen, 2012, “제2장. 새로운 클러벌 시장, 땅” 103-144 등 참조). 식량위기라는 현실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 모지기의 붕괴를 계기로)라는 자본시장의 지구적 경험이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정부들로 하여금 “땅 뺏기”(land grabbing)라고 지적되어지고 있는 “새로운(新) 식민지”(neocolonialism)의 형태를 급속도로 만들어내었다는 것이다.(World Bank, 2007: 6; Worldwatch Institute, 2012b: 346). 자본력이 풍부한 기업과 정부들이 외국(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등) 등에서 농지를 있는 대로 구매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과 정부의 토지 매입은 ‘땅 뺏기’, ‘토지수탈(약탈)’, ‘신식민주의’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착민들의 식량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자국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해외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는 기업과 정부들이 필요한 작물만을 경작하기 때문에 토착민들의 먹을거리 문제의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d) **농작물의 금융상품화(投機商品)**. 식량, 먹을거리가 금융상품화가 되어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작물의 금융상품화 되었다는 것은 자본의 논리로 식량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먹을거리의 목적이 배고픔의 해소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식량이 이용되어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ADM(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rcher Daniels Midland Company)과 카길[Cargill] 두 회사가 전 세계 곡물 무역의 4분의 3을 장악하

고 있다[www.ukfg.org.uk/docs/UKFG-Foodinc-Nov03.pdf.]는 현실과 더불어서 거대 화학기업 몬산토(Monsanto)가 옥수수 종자의 41%, 콩생산의 25%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 [www.grain.org/seedling/?id=478.](Holt-Gimenez and Patel, 2011: 47 재인용) 등은, 농작물이 소수의 투기집단에 의해서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III 나가면서

#### 1 먹을거리 관련 사회문제 요약

지금까지 먹을거리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건강문제, 환경문제, 경제문제가 그것이다. (1) 건강 문제의 경우, (a) 나쁜 음식에 노출된 소비자의 경우, 암,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노출될 수밖에 없고, (b) 공장식 농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경우, 호흡기질환이나 폐질환, 뇌손상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c) 공장식 농장의 사육 동물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중도 폐사율이 높고,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2) 환경 문제로는 (a) 물(담수) 고갈문제, (b) 지구온난화(온실가스 증가), (c) 단일경작(monoculture)으로 인한 종의 다양성의 훼손 가능성이 높게 된다. (3) 경제 문제의 경우, (a) 공장식 축산과 (b) 농산 연료(agrifuel), (c) 토지수탈(land grab), 그리고 (d) 농작물의 금융상품화로 인해 식량 재분배의 왜곡이 일어나 빈곤(기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림: 먹을거리로 발생한 사회문제

문제	내용
건강(보건) 문제	⇒ (a) 나쁜 음식에 노출된 소비자: 암,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등에 노출 (b) 농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 호흡기질환이나 폐질환, 뇌손상 등이 발생할 위험 증가 (c) 농장의 사육 동물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중도 폐사율이 높고, 각종 질병에 시달림
환경 문제	⇒ (a) 물(담수) 고갈문제, (b) 지구온난화(온실가스 증가) (c) 단일경작(monoculture)으로 인한 종의 다양성의 훼손
경제 문제	⇒ (a) 공장식 축산 (b) 농산연료(agrifuel) (c) 토지수탈(land grab) (d) 농작물의 금융상품화

#### 2 代案: 먹을거리 안전성을 위한 작은 실천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즉 먹을거리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

엇이 있을까? 기후변화(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다루면서 빌프리트 봄메르트(Wilfried Bommert)가 “시민 단체의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러한 사회문제를 개인이나 시민단체 혼자서 막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너무 지나친 것임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Bommert, 2011: 351). 그렇지만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하는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불안정한 먹을거리 반죽 속의 효모(빛과 소금)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사람이나 기업들의 살을 파고드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먼저는 김종덕 교수가 자신의 책 제목에서 역설하였던 것처럼 음식문맹자가 아닌 음식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김종덕, 2012; 김종덕, 2009; Lang, Barling, and Caraher, 2012: 426)<sup>2)</sup>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로컬푸드 중심의 식습관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먹을거리와 관련된 사회 문제가 대부분 세계식량경제(Global Food Economy)와 그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세계식량체계(Global Food System)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세계식량경제와 그 경제를 유지하는 시스템에 대항(對抗)하는 지역식량경제와 체계(local food economy[system])를 이용하는 먹을거리 식습관을 가져야할 것이다.

---

2) “먹거리 시민권(food citizenship)이다. 이 말은 시민으로서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뜻이다. 시민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선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시장 이상의 무언가인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인다.”(Lang, Barling, and Caraher, 2012: 426).

## 참고문헌

- 강양구·강이현 (2009). 『밥상혁명』. 서울: 살림터.
- 김석신 (2016). 『음식 윤리학: 모든 음식인을 위한 응용윤리』. 파주: 궁리.
- 김석신 (2014). 『나의 밥 이야기』. 서울: 궁리.
- 김석신 (2013). “음식윤리의 약사(略史)” 『생활과학연구논집』. 33(1). 160-175.
- 김재민 (2014). 『닭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서울: 시대의창.
- 김종덕 (2012). 『음식문명자, 음식시민을 만나다』. 서울: 따비.
- 김종덕 (2009). 『먹거리 위기와 로컬 푸드: 세계 식량 체계에서 지역 식량 체계로』. 이후.
- 김철규, “1장. 현대사회의 먹거리와 농업: 현대 농식품체계의 이해”, 김홍주 외 공저 (2015). 『한국의 먹거리와 농업: 한국 농식품체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대안』. 서울: 따비. 17-35.
- 김홍주 외 공저 (2015). 『한국의 먹거리와 농업』. 서울: 따비.
- 박상표 (2012). 『가축이 행복해야 인간이 건강하다』. 서울: 개마고원.
- 반기성 (2016). 『반기성 교수의 기후와 환경 토크토크』. 서울: 프리스마.
- 송인주, “4장. 식품산업과 한국의 기업식량체계” 김홍주 외 공저 (2015). 『한국의 먹거리와 농업: 한국 농식품체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대안』. 서울: 따비. 90-125.
- 신승철 (2013). 『갈라파고스로 간 철학자』. 파주: 서해문집.
- 장윤재 (2017). 『포스트휴먼 신학: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서울: 신앙과지성사.
- 최낙언 (2016). 『식품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법』. 서울: 예문당.
- 최훈 (2012).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 고양: 사월의책.
- Akst, Daniel (2011). *We Have Met the Enemy*. 구계원 역 (2013). 『자기 절제 사회: 유희 과잉시대, 어떻게 욕망에 대항할 것인가』. 서울: 민음사.
- Barlow, Maude and Tony Clarke (2002). *Blue Gold: The fight to stop the corporate theft of the world's water*. Stoddart Publishing. 이찬신 역 (2002). 『블루 골드』. 서울: 개마고원.
- Bobrow-Strain, Aaron (2012). *White Bread*. 김선아 역 (2014). 『흰 빵의 사회학: 빵의 내밀한 역사와 권력』. 서울: 비즈앤비즈.
- Bommert, Wilfried (2009). *Kein Brot für die Welt-Die Zukunft der Welternährung*. München: Riemann Verlag. 김은경 (2011). 『식량은 왜! 사라지는가』. 파주: 알마.
- Clapp, Jennifer (n.d). *Food*. Cambridge: Polity Press. 정서진 역 (2013). 『식량의 제국: 세계 식량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음모 그리고 그 대안』. 서울: 이상북스.
- Cockrall-King, Jennifer (2012). *Food and the City: Urban Agriculture and the New Food Revolution*. 이창우 역 (2014). 『푸드 앤 더 시티: 도시농업과 먹거리 혁명』. 서울: 삼천리.
- Cox, Stan (2008). *Sick Planet*. Pluto Press. 추선영 역 (2009). 『녹색성장의 유희』. 난장이.
- Gardner, Gary (2015). “5장. 급증하는 농업 자원 손실”. Worldwatch Institute (2015). *Confronting Hidden Threats to Sustainability*. 이종욱·정석인 공역 (2015). 『지속가능성의 숨은 위협들: 2015 지구환경보고서』. 서울: 도요새. 139-164.
- Goodall, J. McAvoy, G. and Gail Hudson (2005). *Harvest for Hope: A Guide to Mindful Eating*. Warner Books. 김은영 역 (2006). 『희망의 밥상』. 1판4쇄. 서울: 사이언스북스.
- Grant, Catharine (2006). *The No-nonsense Guide to Animal Rights*. New International

- Publication Ltd. 황성원 역 (2012). 『동물권, 인간의 이기심은 어디까지인가?』. 서울: 이후.
- Hahn Niman, Nicolette (2009). *Righteous Porkchop: Finding a life and good food beyond factory farms*. 황미영 역 (2012). 『돼지가 사는 공장』. 수이북스.
- Hamilton, Clive (2010). *Requiem for a species*. Allen & Unwin. 홍상현 역 (2013). 『누가 지구를 죽였는가』. 서울: 이책.
- Hengeveld, Rob (2012). *Wasted World: How our consumption challenges the plane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서중기 역 (2014). 『훼손된 세상』. 용인: 생각과사람들
- Holt-Gimenez, Eric and Raj Patel. (2009). *Food Rebellions: Crisis and the hunger for justice*.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역 (2011). 『먹거리 반란』. 서울: 따비.
- Hughes, Meredith Sayles (2016). *Plants vs. Meats: The Health, History, an Ethics of What We Eat*. 김효정 역 (2017). 『채식 대 육식: 지금처럼먹어도 되는 걸까?』. 서울: 다른.
- Keiffer, Katy (2017). *What's matter with Meat?* London: Reaktion Books. 강경이 역 (2017). 『육식의 딜레마: 우리가 얻는 소, 닭, 돼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김포: 루아크.
- Klein, Naomi (2014). *This Changes Everything*. 이순희 역 (2016).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파주: 열린책들.
- Kreutzberger, Stefan and Vakentin Thurn (2011). *Die Essensvernichter: Warum die Hälfte aller Lebensmittel im Müll landet und wer dafür verantwortlich ist*. 이미옥 역 (2012). 『왜 음식물의 절반이 버려지는데 누군가는 굶어죽는가』. 서울: 에코리브르.
- Lang, T. Barling, D. & M. Caraher (2009). *Food Policy: Integrating health, environment and society*. 충남발전연구원 역 (2012). 『건강, 환경, 사회를 하나로 묶는 먹거리정책』. 따비.
- Lang, Tim and Michael Heasman (2004). *Food Wars: The global battle for mouths, minds and markets*. London: Earthscan. 박중곤 역 (2007). 『식품전쟁』. 서울: 아리.
- Lewis, Mike and Pat Conaty (2014). *The Resilience Imperative*. Gabriola Island. British Columbia. Canada: New Society Publishers. 미래가치와 리질리언스 포럼 역 (2015).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12가지 이야기』. 서울: 따비.
- Lyman, Howard F. (1998). *Mad Cowboy*. 김이숙 역 (2004). 『나는 왜 채식주의자가 되었는가』. 문예출판사. 같은 출판사와 번역자에 의해 『성난 카우보이』로 출판된 적이 있다.
- McDougall, John (2012). *The Starch Solution*. New York: Rodale, Inc. 강신원 역 (2014). 『어느 채식주의사의 고백』. 서울: 사이몬북스.
- Martin, Ann N. (2008). *Food Pets Die For: Shocking facts about pet food*. 3rd edn. NewSage Press. 이지묘 역 (2012). 『개·고양이 사료의 진실』. 초판3쇄. 서울: 책공장더불어.
- Millstone, Erik and Tim Lang (2013). *The Atlas of Food*. second edition. Myriad Editions. 박준식 역 (2013). 『풍성한 먹거리 비정한 식탁』. 서울: 낮은산.
- Montgomery, Scott L. and Daniel Chirof (2015). *The Shape of the New: Four Big Ideas and How They Made the Modern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박중서 역 (2018). 『현대의 탄생: 지금의 세계를 만든 결정적 아이디어』. 서울: 책세상.
- Muniglia, Sylvie and Benoit Broyart (212). *VERS UN MONDE ALTERNATIF*. Saint-Herblain: Gulf Stream Editeur. 김보희 역 (2015). 『경제성장이라는 괴물』. 서울: 내인생의책.
- Nestle, Marion (2007). *Food Politics: How the Food Industry Influences Nutrition and Health*.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김정희 역 (2011). 『식품정치』. 고려대학교출판부.
- Norberg-Hodge, H., Goering, Peter, and John Page (2001). *From the Ground Up*. London: Zed Books. 정영목 역 (2003).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 서울: 시공사.
- Patel, Raj (2010). *The Value of Nothing: How to Reshape Market Society and Redefine Democracy*. New York: Picador. 제현주 역 (2011). 『경제학의 배신』. 서울: 북돋음

- Patel, Raj (2007). *Stuffed and Starved*. 유지훈 역 (2008). 『식량전쟁』. 서울: 영림카디널.
- Pawlick, Thomas F. (2006). *The End of Food*. 황성원 역 (2009). 『음식의 종말』. 갈무리.
- Pollan, M. (2001). *The Botany of Desire*. 이경식 역 (2007). 『욕망하는 식물』. 황소자리.
- Reymond, W. (2007). *Toxic*. 이회정 역 (2008). 『독소: 죽음을 부르는 만찬』. 랜덤하우스.
- Richards, Jay W. (2010). *Money, Greed, and God: Why capitalism is the solution Not the problem*. HarperCollins. 송대원 역 (2015). 『돈, 탐욕, 神: 자본주의는 문제가 아니라 답이다』. 서울: 도서출판따님.
- Robin, Marie-Monique (2008). *Le Monde Selon Monsanto: de la dioxine aux OGM, une multinationale qui vous veut du bien*. La Decouverte. 이선희 역 (2009). 『몬산토』. 파주: 이레.
- Robin, Marie-Monique (2011). *Notre Poison Quotidien: La responsabilite de l'industrie chimique*. La Decouverte. 권지현 역 (2014). 『죽음의 식탁』. 판미동.
- Robins, J. (1997). *Diet for a New America*. 이무열·손혜숙 공역 (2014). 『육식의 불편한 진실』. 파주: 아람드리미디어. 동일 출판사가 『육식 :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식생활 혁명』이란 제목으로 (서울: 아람드리미디어, 2001)에서 (I)·(II)로 나누어서 출판된 적이 있다.
- Rogers, Heather (2010). *Green Gone Wrong*. 추선영 역 (2011). 『에코의 함정』. 서울: 이후.
- Rosset, Peter M. (2006). *Food Is Different: Why the WTO should get out of agriculture*. Zed Books. 김영배 역 (2008). 『식량주권』. 서울: 시대의 창.
- Shapiro, Mark (2016). *The End of Stationarity*. 김부민 역 (2019). 『정상성의 종말: 기후 대재앙 시나리오』. 서울: 알마.
- Sassen, Saskia (2014). *Expuls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박슬라 역 (2016). 『추출 자본주의』. 파주: 글항아리. 제2장. “새로운 글로벌 시장, 땅”. 103-144.
- Singer, Peter & Jim Mason (2006). *The Ethics of What We Eat*. 함규진 역 (2012). 『죽음의 밥상』. 초판17쇄. 서울: 산책자.
- Timmerman, Kelsey (2013). *Where Am I Eating: An Adventure Through the Global Food Economy*. John Wiley & Sons. 문희경 역 (2016). 『식탁 위의 세상: 나는 음식에서 삶을 배웠다』. 서울: 부키.
- Wilson, B. (2008). *Swindled: From Poison Sweets to Counterfeit Coffee-The Dark History of the Food Cheats*. 김수진 역 (2014). 『공포의 식탁: 식품 사기의 역사』. 서울: 일조각.
- Wagenhofer, Erwin & Max Annas (2006). *We Feed the World*. 정재경 역 (2010). 『식탁 위의 불량식품: 거대 글로벌 식품산업 탐사기』. 현실문화연구.
- Werner-Lobo, Klaus and Hans Weiss (2014). *Schwarzbuch Markenfirmen: Die Welt im Griff der Konzerne*. Wien: Paul Zsolnay Verlag. 김태욱 역 (2015). 『세계를 집어삼키는 검은 기업』. 서울: 숨쉬는책공장.
- Worldwatch Institute (2012). *State of the World 2012*. 박준식·추선영 공역 (2012a). 『2012 지구환경보고서: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서울: 토요일. 이 책에 모니크 미카일(Monique Mikhail), “13장.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만들기”, 383-401.
- Worldwatch Institute (2011). *State of the World 2011*. 생태사회연구소 오수길·곽병훈·박현신·민연경 공역 (2012b). 『희망의 경작』. 서울: 토요일
- William, Davis (2011). *Wheat Belly: Lose the Wheat, Lose the Weight, and Find Your Path Back to Health*. 인윤희 역 (2012). 『밀가루똥배』. 서울: 에코리브르.
- Wilson, Bee (2008). *Swindled: From Poison Sweets to Counterfeit Coffee-The Dark History of the Food Cheats*. 김수진 역 (2014). 『공포의 식탁: 식품 사기의 역사』. 서울: 일조각.
- Yoshida, Taro (2011). *Bunmei Wa Nougyou De Ugoku*. Tokyo: Tsukiji-Shokan. 김석기 역 (2011). 『농업 문명을 움직이다』. 파주: 들녘.

제36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논문 (19.10.26)

Zaraska, Marta (2016). *Meathooked*. Basic Books. 박아린 역 (2018). 『고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서울: 메디치.

Ziegler, Jean (2011). *Destruction Massive*. Zürich: Mohrbooks. 양영란 역 (2012). 『굶주리는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서울: 칼라파고스.